



“십자가”

2009. 10. 7 (수), 10 (토) 강사: 박원호 목사(주님의교회 담임)

"십자가 없이 기독교는 없다!"

〈구원의 소망〉

1. 세상

1) 세상의 소망: ‘고통’ 없는 세상,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화목한 삶, 기쁨의 삶....

2) 세상의 노력들:

1) 지식: _____

과학, 의학, 심리학 등의 발달...

2) 힘: _____

3) 경제(빡): _____

4) 진화: _____

5) 성(sex): _____

2. 종교의 노력:

1) 유교: _____

2) 불교: _____

3. 기독교의 반응

1) 근본 문제 : _____

2) 죄란?

가. 엄연한 실체.

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_____ 존재.

다. 목적: _____

3) 기독교의 방법 : _____

하나님의 방법 : _____와 _____의 방법.

4) 세상의 방법들과의 차이?

무력이나 지식이 아님. 인간의 힘도 아님.

5) 결과 : 모든 피조물들 간의 _____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

- 로마시대의 사형 집행 수단. 십자가 또는 T 형태.
처음부터 기독교의 상징.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을 십자가로 규정함.
- 십자가의 의미는 과거와 같지 않음.

*** 십자가는 죽은 상징(a dead symbol, George Lindbeck) 하지
만 여전히 기독교는 십자가를 필요로 함.**

1. 단순함과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깊이.

고전 15: 3 "

행 16: 31 "

2. 십자가의 필요성.

1) 하나님의 _____을 이루기 위한 필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핵심적인 부분.

눅 24:26절, 행 2:23

이 땅에서 이루어진 가장 악한 일임과 동시에 가장 최선의 일

2) _____를 지불하기 위해 필요.

-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동시에 이루어짐.
- 어떻게 자신의 사랑과 의로움을 희생시키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가?
- 하나님은 죄를 간과할 수 없으심.(이는 사랑일지는 몰라도 거룩함은 아님)
- 죄를 심판하신다면 거룩하실 수는 있어도 사랑은 아님.

● 십자가는 거룩함과 사랑이 만나는 곳.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

● "십자가는 자신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절대적인 방법으로 나타내신 사건

(Emil Brunner)

3) _____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

당신의 구원에 십자가가 필수적. 영생은 예수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
(십자가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는 것과 그 날에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나도 십자가에 손을 대었을 것이며 손에 피를 문혔을 것을 믿는 것이며, 이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임을 믿는 것, 내가 죄인임을 믿는 것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믿는 것)

3. _____인 십자가.

오늘날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거부감'을 상실함.

이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상실함을 뜻함.

1) 로마인에게 _____의 대상

- 이는 잔인한 사형 집행 제도로 소름끼치는 방법.
- '가장 잔인하고 역겨운 형벌(Marcus Tullius)': 고문, 벌거벗김, 피 흘림..
- 종들이나 이방인들에게 사용함. '십자가'라는 말은 로마 사회에서는 터부시 된 말.(로마인은 몸과 정신과 눈과 귀에서 십자가라는 말을 쓰지 말 것)

2) 유대인들에게는 _____, 신 21: 22-23.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받은 자. 따라서 십자가 형은 성스러운 예루살렘 도시 밖에서 집행됨. 신약에서 베드로나 바울이 '나무'라고 부르는 이유는(행 5: 30, 10: 39, 13: 27-29) 이로써 구약을 생각나게 하기 위함. 십자가는 하나님에게도 저주스러운 것. 초대교인들은 나무라는 말을 기꺼이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벗기심을 증거함.

3) 모든 도덕적인 사람에게 _____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을 의롭게 생각함.

그러나 십자가는 이 모든 생각을 거부함. 인간은 죄에 대해 무력하고 소망이 없으며 불의한 존재.

4) 예수는 십자가를 개의치 않으심.

예수는 유일하게 십자가를 저주하지 않으심. (히 12: 2,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4. 십자가의 평화

세상은 잠시 평화의 선포가 있을 뿐,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음.

1) 하나님과의 전쟁

- 이 땅에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하기 때문.
-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과의 전쟁을 계속.
- 어떻게 이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말하고 있으며(골 1:21, 롬 5: 10), 고통받는 양심이 이를 말하며,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하지 못함.

2) 화목제

- 세상에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평화. 골 1: 19-20
- 화해(reconciliation)란 시장에서 서로 교환하는 것을 뜻함.
- 하나님의 원수에서 친구로 변함.

- 하나님과의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심.
- 화해는 하나님의 본성: 원수를 친구로,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전쟁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제공하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시는 방법이 십자가.(골 1: 20)
- 화해는 참된 문제를 다름으로 이루어짐.(문제가 무시되거나 간과되어선 안되며 극복되어야 함) 이것이 바로 십자가.
- 십자가의 평화는 과거의 사건!: 이미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가 됨.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화해가 성취되었다!
- 이제 이 화해를 받아들여야 함.

3)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모든 이웃과 화평해야 함.
- 히 12: 14.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